

빗방울이 후두둑

전미화 그림책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초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제	비 오는 날을 즐겨 보아요.
권장 차시	5차시
대상 학년	1-2학년
관련 주제어	여름, 비, 장마, 내 마음
교육 과정 연계	통합교과 여름 [즐04-01]여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즐04-02]여름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즐04-04]여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를 한다. 국어 [2국05-03]여러 가지 말놀이를 통해 말의 재미를 느낀다. [2국05-01]느낌과 분위기를 살려 그림책, 시나 노래,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듣는다.



■ 도서 소개

굵직한 소나기를 시원하게 맞아 버린, 어느 비 오는 날의 풍경을 그린 그림책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일이 꼬여 버린 날, 그런 날일수록 나는 나대로 천천히 가자는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시원한 여름의 색깔, 과감한 화면과 질감, 리드미컬한 상황극이 커다란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 학습 목표

- 비가 내리는 모습과 소리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 날씨에 따른 기분과 더불어 걱정이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다.
- 여름 날씨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 비 오는 날을 상상하며 그림 그릴 수 있다.
- 비 오는 날 마음껏 놀아 본다.

■ 수업 준비

이 그림책은 여름날 소나기처럼 시원하다. 몇 줄 안 되는 글에서도 생동감이 느껴진다. 사실 잘 차려입은 주인공은 갑자기 만난 소나비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그림책을 읽는 내내 느껴지는 시원함이 좋아 비가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주인공 뜻대로 되는 건 없었지만, 마침내 자기대로 걸어가기로 결심한다. 잠시 멈추었다가 천천히 걸어가는 주인공의 박력 있는 모습은 앞만 보고 말처럼 달려가는 사람들의 뒤에 있지만 누구보다 또렷하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비 오는 날을 싫어한다. 비 소식은 우산, 장화, 우비를 준비하느라 아이들을 번거롭게 만들고, 특히 여름 장마철의 긴 비나 소나기는 아이들의 놀이를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 오는 날에 제대로 놀아 본 아이들은 안다. 비를 피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비 웅덩이를 침범거리며 노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우산을 쓰고 놀러 나간 아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산을 거꾸로 들고 비를 받아 뿌리고, 빗물이 가득한 곳에서 줄넘기를 돌리며 물장난을 치곤 한다. 이 신나는 비 놀이는 비를 맞아도 춥지 않은, 오히려 짹짹한 더위를 날리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여름날에만 가능하다. 이 책을 감상하고, 여름 소나기를 기다렸다가 비와 놀아 보자. 너무나 더워서 처지는 한여름에도,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날에도,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날에도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이다.

수업 준비물 수채화 물감, 전지 사이즈 도화지, 크레파스

■ 학습 과정

	주요 활동	차시
책 읽기 전	비가 오는 모습 표현하기 -여름을 몸으로 나타내기 -빗소리 들으며 몸으로 표현하기 -빗소리를 흉내 내는 말로 나타내기 -빗소리 오케스트라	1차시
책 읽으면서	비 오는 날에 -자기의 경험 이야기 나누기	1차시
책 읽은 후	수채화 물감으로 비 그리기 -빗소리를 들으며 비 그리기 -비와 함께 씻겨 나가고 싶은 것 쓰기	3차시
	비가 오면 나가 놀기 - 비 오는 날 밖에서 마음껏 놀기 - 기념사진 찍기	
	비 오는 날 모습 그리기	



책 읽기 전

1. 여름을 몸으로 표현해요

- 먼저 여름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눈다.
- 모두 일어나서 걷다가 교사가 '여름!'이라고 외치고 '하나, 둘, 셋!' 하면 여름과 관련된 어떤 동작을 하고 멈춘다. 어떤 정지 동작인지 물어본다. 예를 들면 너무 더워서 손부채를 하고 있거나,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거나, 그냥 쉬고 있을 수 있다. 다시 걷다가 또 '여름!'이라고 외치면 또 관련된 동작을 하고 멈춘다.
- '여름!'을 세 번 정도 해 본 뒤에 이번에는 '비가 온다!' 하고 외친다. 아이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다가 '정지!'라고 외치고 모두 그 자리에 멈춘다. 갑자기 비가 오니까 어떻게 움직이게 됐는지, 뭘 하다가 멈췄는지 이야기를 나눠 본다.
- 모두 제자리에 앉아 자신이 경험한 '비' 이야기를 짧게 나눈다.

2. 빗소리 오케스트라

- 인터넷에서 다양한 빗소리를 찾아 들어 보고('rainy mood'를 검색) 어떻게 내리는 비인지 소리에 따라 몸으로 표현해 보자. 차분하게 내리다가 점점 세차게 내리거나, 천둥을 동반한 빗소리도 들려준다. 몸을 흔드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걷는 속도로 표현할 수도 있다.
- 빗소리를 들으며 몸으로 표현한 뒤에 어떤 말로 이 빗소리를 표현하면 좋겠는지 흉내 내는 말로 나타내 보자. 여러 가지 빗소리 중에서 자신의 귀에 남는 소리를 하나 정해 표현하면 된다.
- '주룩주룩', '썩아아', '뚝뚝뚝뚝', '두두두두두' 등 여러 가지 말로 나타내고, 그 말을 차례대로 반복해서 말해 보자. 이제는 입으로 빗소리를 낸다. '주룩주룩 주룩주룩' 하고 자기 나름대로 박자를 정해서 계속 소리를 내는 연습을 돌아가며 한다.
- 이제 다 함께 소리를 더해 보자. 앞 사람이 '뚝뚝뚝뚝' 하고 소리 내고 있으면 다음 사람이 '썩아아 썩아아' 하며 소리를 보탠다. 이런 규칙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소리를 보탠다. 소리의 종류가 많아도 좋고, 비슷한 소리를 내는 학생들을 모아서 모듬별로 소리를 만들어도 된다.
- 이제 교사는 빗소리 지휘자가 된다. 교사의 신호에 맞춰 자기 순서가 되면 자기의 빗소리를 낸다. 모두의 소리가 다 채워지면 교사의 지휘에 따라 소리를 점점 크게도 점점 작게도 내 보자. 교사가 가끔 '우르릉 광광!' 또는 '휘이이잉' 하고 천둥이나 바람 소리를 내 주면 재미있다. 마칠 때는 소리를 점점 줄인다.

책 읽으면서

1. 비 오는 날 책 읽기

- 그림책 표지를 보며 이 작가는 빗소리를 ‘후두둑’으로 표현했다. 어떻게 내리는 빗소리일까 이야기를 나눠 보자. (소나기처럼 갑자기 오거나 세차게 내리는 비)
- 어느 여름날 소나기가 왔을 때 일어난 이야기임을 말해 주고, 소나기를 맞아 본 적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했다면, 책 속 주인공은 어떻게 해소하는지, 만약 나라면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할지까지 이야기 나눌 수 있다.

책 읽은 후

1. 수채화 물감으로 비 그리기

- 우리도 그림책 작가처럼 수채화 물감으로 빗소리를 들으며 비를 그려 보자. 이때 붓은 자기가 원하는 굵기로 고르면 된다. 작은 도화지보다는 가능한 전지 이상의 큰 종이에 둘러앉아 신나게 그려 보자. 종이 한쪽 면에 먹 구름을 미리 그려, 비가 내리는 방향은 같도록 하자.
- 깔끔하게 그리기보다 빗소리를 따라 부드러운 붓과 수채화 물감의 느낌을 살려 자유롭게 그리도록 한다. 색깔 역시 각자 원하는 대로 그린다.
- 어느 정도 빗방울이 채워지면 잠시 멈추고 눈을 감는다.
- 빗소리를 계속 들려주며 이 빗소리와 함께 씻겨 내고 싶은 걱정이나 고민이 있는지 떠올려 보자. 떠오르면 빗방울 사이에 그 낱말을 적는다.
- 모두 적었으면 다시 붓으로 빗방울을 마음껏 그린다. 물감 놀이를 한 것처럼 종이를 짝 채워도 된다. 물감으로도 비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 시원함을 느낀 뒤 소감을 나눈다.

2. 비 오는 날에 나가 놀기

- 비가 온다면 나가 놀아 보자. 우산을 쓰고 산책해도 되고, 젖은 흙에 발자국을 내도 좋고, 물을 튀기며 놀아도 좋다.
- 기념사진도 찍어 보자.

3. 비 오는 날 모습 그리기

- 크레파스로 빗방울을 먼저 그린다.
- 그 위에 수채화 물감으로 전체를 칠한다. 크레파스로 그린 빗방울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 비가 오는 날에 밖에서 뭘 할지 동작을 취해서 사진을 찍고 미리 프린트해 둔다.
- 자기 모습을 올려서 비를 그린 종이에 붙인다.
- 또 다른 종이에 내가 쓰고 싶은 우산이나 장화, 비가 올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 비 오는 날 놀이에 필요한 것 등을 그린다. 그것들을 오리고 비를 그린 종이에 붙여 그림을 완성한다.

